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Intervention Effect of Group Counseling in Improvi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ngruent Communication Style among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박사과정수료 이 종 원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or : Jongw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주요 활동내용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th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ngruent communication style of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A twice-weekly group counseling consisting of 10 sessions was provided to 5 women residing in shelters in Seoul, South Korea from October 19th to November 20th 2009. This study employed the self-esteem scale developed by Rosenberg(1965)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Jeon Byoung Jae(1974), a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Kim A Young,1997) and a congruency scale(Go Moon Jeong, 2008). The Wilcoxon non-parametric verification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group counseling sessions. The results revealed meaningful improvement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ngruent communication styles.

주제어(Key Words) :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일치적 의사소통 유형(congruent communication style), 일치성(congruency), 가정폭력(family violence)

I. 서론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두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공론화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도 현재 전국의 16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총 상담건수 164,181건 중 전체 31%인 50,838건이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고, 전국의 372개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06년 한 해 상담한 283,705 건 중 49%인 138,949건이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2005년 대비 각각 6%, 25.2% 증가한 수치이다(유계숙, 장혜경, 전해정, 김윤정, 민성혜, 2009). 법안 제정 이후 가정폭력 접수 건수나 형사 입건 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불처분율은 평균 48%로(김기환, 2003; 장덕희, 2001) 대개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녀를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으며(장희숙, 허남순, 김유순, 2001),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경우야야 가출 또는 이혼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피해로 인한 가출 여성 중 70%가량의 여성들은 폭력 배우자를 떠났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고(정은, 이경옥, 2005), 쉽터에 체류하는 기간도 개인마다 일정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피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개입이 쉽지 않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피해에 노출된 자녀들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일, 1988; 김광일, 문경서, 1994; 김연옥, 박인아, 2000; 유계숙 외, 2009; 허남순, 1993). 특히 피해자인 아내의 자아존중감과 아내폭력 관련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고,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구타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자아 존중감은 낮고, 자아기능도 많은 손상을 입으며(김광일, 문경서, 1994), 남편의 구타를 받은 아내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더불어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의 정신적·심리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유계숙 외, 2009; Hilbermann, 1980). Satir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대인관계에서의 대처방법의 근거로 간주하고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자아존중의 세 가지 요소로 자기, 타인, 상황을 규정하고 이 세 요소 중 어떤 부분이 무시되는지를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Satir는 사람들이 긴장 시에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

형, 산만형 등의 방법으로 긴장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유형들은 사람들이 긴장 시에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및 대처유형으로서 일종의 생존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기보다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일치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일치적 즉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시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여 부부간 일치적이지 못한 상호작용을 할 때 그것이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므로(김수연, 김득성, 2001;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Infante, Chandler, & Rudd, 1989; Satir, 1978) 피해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그들이 가족간이나 대인과의 관계에서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장기적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을 보이는데(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유계숙 외, 2009; Hilbermann, 1980), 그러한 피해자들의 특징들은 생활전반에 걸쳐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 수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 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므로(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을 위한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면에서도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세 변인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연계성이 있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에서 향상시켜야 할 주요 변인들이므로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함께 다룬 프로그램이나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내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소개한 연구들 중 가해자의 행동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 효과 관련 연구들(김미애, 2006; 유채영, 2002; 이인수, 최대현, 최명구, 2005; 이은주, 2005; 장수미, 2004; 장은희, 이현림, 2008; 조미숙, 2004; 현미열, 2008), 피해자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김신아, 현명신, 1999; 김혜정, 황경열, 2005; 송진희, 2008; 양혜월, 2009; 이은주, 최외선, 2005; 정남희, 최외선, 2003)이 최근 들어 소개되고 있지만, 주로 한 영역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나 하나의 치료모형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며,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함께 연계하여 집단상담으로 그리고 가족치료의 두 모델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나 가정폭력 관련 연구의 축적 필요의 면에서도 본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센터에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피해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조절해내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평상시에도 일치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지연하지 않고 실제 행동차원으로 직접적인 해결을 해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일치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다면 가해자인 남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과 의사소통 패턴에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와 가족체계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 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가족 전체의 역동을 좀 더 기능적이고도 건강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사후중재의 1단계 작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재한 여성센터에 머물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향상, 그리고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효과를 보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은 피해여성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며 가해자에게나 자녀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연구와 가정폭력 관련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정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쉽고 그 순환고리를 끊기도 어려우며 가정 내 가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며,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세대간에 걸쳐 악순환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보다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개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가 효과적이며 필요하다. 가족치료의 이론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자매

체계 등 여러 하위체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외부의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또한,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의사소통이 가족 내 각 하위체계간의 관계와 가족체계와 가족체계를 둘러싼 외부체계와의 상호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그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으므로 후유증도 다양하고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송성자, 2001). 모든 인간이 잠재능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삶,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자세와 역기능적인 패턴이 세대에 걸쳐서 순환되는 경우에도 인간이 문제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임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등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가족체계이론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족치료의 여러 모델 중 특히 해결중심 가족치료모델과 경험적 가족치료모델은 가족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잠재능력과 자기선택권 인정, 인간의 성장과 변화, 강점의 확대를 믿고 신뢰하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절한 가족치료모델들이다.

해결중심 치료는 인간의 잠재적인 자원, 문제해결능력,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변화욕구 등을 중요시하며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정 즉 모든 내담자는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가진 자기 삶의 전문가라고 가정하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내담자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둬으로써 치료 목적을 성취하는 치료 모델이다. 해결중심의 치료기법들 예를 들면, 간접적 칭찬과 공감, 알고자 하는 자세, 강점의 발견과 확대, 목표도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조망 등은 참여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돕고, 강점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유지 확대를 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외질문을 통해 생활속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예외를 확장하도록 도우며, 척도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기적으로 가까이까지 현재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인 성공가능성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치적이 되도록 돕는데 효과적인 모델이다.

Satir 가족치료모델은 개인의 성장과 건강을 돕는 것과 관련하여 체계론적 사고와 긍정적인 실존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인간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존중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으며, 내면의 강한 잠재능력을 근거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돕는 것, 변화와 성장, 자아존중감 향상, 의사소통에 있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부터 일차적 의사소통으로의 변화를 치료의 메타목표로 두고 있다. Satir 경험적 가족치료의 여러 기법들 중 개인빙산탐색과 가계도 분석, 가족조각 기법을 통해 미해결된 감정해결과 자신과 배우자, 배우자 원가족, 자기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부분들의 잔치, 뿌리내리기, 명상, 의사소통유형 연습 등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의 이론적인 토대 위에 위에서 설명한 두 모델의 기법적인 장점들을 조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향상, 일차적 의사소통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2. 관련 선행연구

1) 가정폭력과 가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정폭력과 관련되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 중 가해자와 관련되는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이 가해자의 학력, 정신병리,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종교, 경제상태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성이 깊고(Koenig et al., 2003; Yount, 2005 재인용; Perry -Jenkins et al, 2000), 개인관련 변인으로 과도한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낮은 자아존중감, 자신감 부족, 분노 통제능력의 결여, 편집증적 성격이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같은 정신 병리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광일, 1988; 허남순, 1993).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약 85%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들이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낮고, 내면에 가득한 분노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김광일, 1988; 유계숙 외, 2009), 피해자들의 85.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7.5% 가량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민섭 외, 2004). 특히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고,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구타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기효능감도 많은 손상을 입으며(김광일, 문경서, 1994), 남편의 구타를 받아온 아내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더불어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의 정신적·심리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유계숙 외, 2009;

Hilbermann, 1980). 더하여, 학대받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모든 건강 관련 영역에서 건강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saker, Moen, Nortvedt, & Baste, 2006).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가정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 양육 능력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외상적 증상들에 미치는 가정 폭력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Graham -Bermann & Levendosky, 1998; Holden & Ritche, 1991), 일부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레질리언스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기로는 가정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자녀일수록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행동을 많이 하며(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8; 김재엽, 이지현, 전윤경, 2008; 조미숙, 1999; 박형원, 2004; Kolbo, Blakely, & Engleman, 1996; O'Keefe, 1994; Onyskiw, Hayduk, 2001), 사회적 능력 면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고(양혜원, 전명희, 2001; Kolbo, Blakely, & Engleman, 1996), 더 자아존중감이 낮으며(김연옥, 박인아, 2000), 더 공격적이고(Davies & cummings, 1994; Grych & Osborne, 1994), 정서적 어려움과 공격적인 역동이 성인기의 삶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geland, 1993).

2) 가정폭력과 부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이 부부가 서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의 결과이며(Infante, Chandler, & Rudd, 1989), 적절하지 않은 가족간의 역기능적인 대처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atir, 1978). 또한, 스트레스 상황시 의사소통 유형이 산만형일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며, 아내의 경우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비난형일수록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고(김득성 외, 2000), 남녀 모두 정서적 유대감이 적고 경멸하는 태도로 의사소통 할수록 부부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수연, 김득성, 2001) 스트레스 상황시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가정폭력이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3) 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실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서 자신감을 가지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능력과 잘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에 관한 내용이다. Bandura(199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불안각성의 인지적인 조절자로 작용하며 위협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안을 보이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높

은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해야 할 일을 마감시간까지 혹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낄 때까지 불필요하게 계속 미루는 현상을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연 특히 수동적인 지연경향과 자기효능감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며(김환, 1999; Solomon & Rothblum, 1984), 자기효능감이 지연경향과 우울경향을 그리고 우울경향이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양병한, 2005). 지연행동을 많이 할수록 개인내적으로 비합리성, 후회, 절망, 자기비난 등에 시달리고,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낮은 성취를 초래하며(김연실, 2000),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실망감, 낙담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만성적인 자기비하와 개인 만족추구의 무가치함까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Beck, 198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기효능감을 실생활 속에서 향상시켜야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 우울 등도 감소되며, 자기효능감 향상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의사소통도 일치적으로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효능감의 향상도 피해자 프로그램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변인 중의 하나이다.

4) 가정폭력과 가족 변인과의 관계

가정폭력의 노출경험 관련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내 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며, 아내 학대에 대한 태도, 반사회적 성격특성 등의 다른 매개변인들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Stith et al., 2000; Tontodonato & Crew, 1992)도 있으나, 많은 국내의 연구들과 서구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많을수록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내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공미혜, 1993; 김광일, 1992; 김예정, 김득성, 2006; 송정아, 2000; 안영희, 1998; 이종원 외,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 Dumas, Margolin, & John, 1994; Heyman & Slep, 2002; Hiberman, 1980; Widom & Maxfield, 2001). 가정폭력의 양상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으나(김예성, 김득성, 2006; 정혜정, 200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수와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요인들과 관련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간의 폭력을 유의하게 예견하는 요소들로는 공격적이고, 여성에 대해 지배적인 남성의 성격, 성적 질투, 가부장적 신념, 여성의 낮은 가정 수입에의 참여정도와 높은 경제 의존도, 남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스트레스, 부부간 갈등, 불평등한 부부 권력구조, 부부규범, 성불평등적인 사회분위기, 부부간 큰 자원의 차이, 실직, 높은 알코올 소비, 가해

자의 가족구조, 가족관계의 역동성, 가족구성원의 친밀감 정도, 친정의 개입 정도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2007; 김지영, 최상진, 2004; 정민자, 엄선필, 2002; Anderson, 1997; Felson, 1996; Melzer, 2002; Migliaccio, 2002; Parish, Wang, Laumann, Pan, & Luo, 2004; Perry-Jenkins, Repetti, & Crouter, 2000; Umberson et al., 2002).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프로그램 실험집단(참여자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이후 자아존중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이후 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이후 일차적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프로그램 참여자:

서울특별시 소재 쉼터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여성 5명으로, 이들은 30대~60대로 연령대가 다양한 그룹이었으며, 5명 모두 2009년 10월 말 현재 쉼터에 입소한 지 한 달 미만자들이었으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한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카렛트만 1회기에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회의 프로그램 회기 모두 출석하였고 성실하고 열의를 가진 능동적인 참여자들이었다. 마카렛트는 2회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1회기에 실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2회기부터는 10회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충남에서 올라온 황후마마를 제외하고는 서울 근교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혼자들이었으며, 중졸 또는 초졸의 학력이었다.

2) 프로그램 실시 일시:

2009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월, 금 혹은 월, 토요일 주2회씩 총 10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매회 오전 10시30분~오전 12시 30분까지(회당 120분내외. 1회와 10회 전 후에 사전, 사후검사로 45~55분 초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실시 장소: 서울특별시 소재 쉼터 내 2층 세미나실

4) 프로그램 진행자: 주진행자 1인

5) 측정도구

〈표 1〉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특징들

(N = 5)

별명	주요 특징들
황후 마마	66세, 기독교, 초졸, 3남. 가정주부. 의치증 심한 남편문제 호소. 남편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자주 표출되어 기복이 많아 보이며, 생각을 깊이 많이 하는 편이어서 불면증, 가슴의 통증, 뒷머리 빠근함과 손발의 저림 등의 신체화증을 많이 보임.
빈궁 마마	55세, 기독교, 중졸, 브라질에 이민을 가있는 장녀와 장남이 있고, 막내 아들은 대학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거. 사업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 안수를 받은 남편이 목회를 준비중임. 아내에게 지시적이고 통제적이며 감정조절을 잘 못하고 비난이 심한 남편으로 인해 심터로 오게 됨.
올리브	46세, 기독교, 중졸, 남편과 동거하는 대학생 아들과 자신이 심터로 데리고 나온 초등학교 5학년의 딸이 있음.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기대하였으나, 남편은 동갑이면서도 남동생과 같이 아내에게 다방면으로 의존하려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음.
마카렛	42세, 기독교, 초졸, 소아마비 장애, 연변족으로 8년 전 결혼을 통해 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정착. 슬하에 2남 1녀가 있고,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딸을 데리고 심터로 나눔. 프로그램 마치는 시기에 딸과 함께 퇴소하여 독립.
악바리	36세, 기독교, 중졸, 심터 식구들 중 최연소자임. 7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과 고아원에서 성장하였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음. 1남 1녀의 자녀들은 현재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음. 남편이 도박중독으로 입원중임.

(1) 자아존중감 척도

-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의 척도를 전병제(1974)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며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다수의 논문들에서 신뢰도가 .80 이상으로 보고된다.

(2) 자기효능감 척도

- 김아영(1997a)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안정적인 특성으로서의 개인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제작된 척도로 대인관계, 직업성취, 자기효능 3차원의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1, 2, 3, 4, 5, 6, 19, 22번 문항은 역채점하며, 세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80 이상인 것으로 예비조사(김아영, 차정은, 1996)와 후속연구들(김아영, 1997b; 김아영, 1998; 김아영, 박인영, 2001)에서 보고되었고 요인분석 부하량도 .40 이상였다.

(3) 일치성 척도

-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서의 일치성 척도는 Satir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문정(2008)이 개발한 5점 likert 척도로 대인간차원 8문항, 심리내적차원 12문항, 영성차원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 2, 3, 4, 5, 13, 14, 21번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치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계수는 대인간차원의 경우 .73, 심리내적차원의 경우 .87, 영성차원의 경우 .85로 보고되었으며, 내용구성타당도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6) 프로그램 사전과 과정검사, 사후 검사 실시방법

(1) 사전검사

- 프로그램의 사전에 위의 3가지 일치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검사를 참여대상자 집단에 실시한다.

(2) 과정검사

- 프로그램 매 회기의 시작과 중간의 휴식시간, 회기별로 프로그램 종료 후 3회에 걸쳐서 진행시간과 진행자와 참여자간의 프로그램 관련 피드백을 나누고, 과정체크, 과제제시, 개인별, 집단별 피드백 제공하였다. 더하여, 참여자들의 변화기록지를 프로그램 종결 시 개인에게 제공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고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

(3) 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성 3가지 척도에 대한 사후검사를 사전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7) 측정방법

(1) 연구문제 1의 실험 참여자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이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비모수적 동일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인 Wilcoxon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2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Wilcoxon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문제 3의 일치적 의사소통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Wilcoxon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8) 회기별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1) 프로그램명: 소중한 나, 성장하는 나

(2) 프로그램의 목적:

-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삶에 책

입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지며, 자기를 존중하는 일치적 여성으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프로그램의 하위목표:

- 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 ②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 ③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4) 프로그램의 회기별 실시방법:

첫 회기 시작 전 사전검사와 10회기 이후 사후검사는 약 45분~55분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외에는 매 회기 거의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시간 배분 하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1회기와 10회기를 제외하고는 각 회기마다 쉼터의 2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회기의 시작마다 명상으로 시작하였다. 1회기와 10회기의 경우도 사전과 사후검사 실시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구성은 아래와 동일하였다.

① 도입단계(20분)

- 1회기의 경우 사전검사, 자기소개 및 진행자 소개 등으로 라포형성을 실시하며 다른 회기보다 좀 더 시간에 여유를 두었다. 2회기부터는 이전 시간의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피드백과 과제확인 및 당일 프로그램 개괄적인 소개를 실시하였다.

② 전개단계(50분)

- 회기별 주요내용을 가지고 2인씩 1조가 되거나 3인씩 1조가 되어서 소그룹 활동 및 전체 활동을 활동책을 가지고 실시하였음. 가족조각의 경우에는 전 참여자들이 모두 가족조각에 함께 참여하였다.

③ 간식 및 휴식(20분)

- 회기마다 쉼터장이 간식을 준비해주셨고 친교 및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때 주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응하거나 참여자들에게 중간 피드백을 받아 과제제시와 참여자들에게 종결 시 제시할 과제를 생각하여 적어두었다.

④ 심화단계(20분)

- 전개단계에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활용과 확장이 가능하도록 실습, 실연과 참여자들의 상호 피드백 등을 격려하여 뿌리내리기와 변화를 유지 또는 확대하도록 도왔다.

⑤ 종결단계(10분)

- 회기마다 개인별 혹은 집단에 대한 과제제시와 메시지를 제공하였고, 차시 시간과 장소 및 차시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한 후 종결하였으며, 10회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IV.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주요 활동내용

〈표 2〉 1회기 과정 요약

(N = 4)

프로그램명	소중한 나, 성장하는 나	진행	주진행자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45분(오전10:30~오후1:15)
일시/기간	2009년 10월 19일 (1 회기)		
목 표	1. 라포형성하기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이해하기) 2.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집중하기 3.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활동상황	1. 프로그램 사전검사 실시 2. 명상이완 (자기 몸의 각 기관에 집중하며 감사하기) 3. 명상에 대한 느낌 나누기 4. 별명 짓고 자기 별명을 가지고 자신 소개하기 5.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하기 원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기 6. 생각의 전환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7.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8. 참여자 각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진행자와 다른 참여자들이 해주기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들과 진행자가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상호 신뢰와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가능하기를 기대함.		
참여자특성	부정적인 정서 중 두려움, 불안, 슬픔과 관련한 정서를 변화되기 원하는 목표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임.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적고 위축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지각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비우거나 버리고 싶어하는 참여자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식전환과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임.		
평가	모든 참여자들이 명상 과정을 통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끼며 자기 몸에 대한 감사를 보냄. 명상시 참여자들은 가슴이나 다리 등의 부위에 통증과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짐을 호소하였음.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고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음. 입소시기가 거의 비슷하여 서로의 장점들을 상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를 인정하는 열의를 보임.		

〈표 3〉 2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0월 23일 (2회기)		
목 표	1. 참여자들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 확장하기 2. 과거를 되돌아보는 명상과정 속에서 자기 내면과 자신에 대한 이해 높이기 3.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기		
활동상황	1. 명상하기 (과거로의 여행) 2. 지난 시간 이후 자신의 삶 속에서 달라진 부분,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확장하기 3. 활동지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중요시하는 사람, 가치, 물건 등을 알아보고 이해하기 4. 각 구성원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상징물 전달하며 격려하기		
기대효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인지하며 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의 큰 흐름으로 확장하도록 격려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기대함. 또한,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상징적인 선물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기대함.		
참여자특성	도입 부분의 명상 시간이 과거로의 여행을 주제로 하여 다소 길었고, 밖이 약간의 소음으로 집중과 몰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참여자 전반에게 잠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탐색활동과 상징물을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변화를 확장해나가면서 구체화하도록 돕는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활기차고 표정도 밝아져 많이 웃고 참여도 적극적이었음. 참여자 중 1인이 지속적으로 우울한 얼굴을 보여 개인상담과 이후의 회기에 사례로 함께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평가	2회기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였음. 3점 미달의 이유는 명상 부분이 너무 길었고, 밖의 소음으로 몰입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음.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갑작스런 선물이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생각됨.		

〈표 4〉 3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0월 26일 (3회기)		
목 표	1.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확장하기 2. 스트레스 상황시 대처유형을 이해하고 가족조각을 실제 만들어보기 3. 가족 조각을 시연하면서 star를 중심으로 각 가족구성원의 입장과 내면을 이해하기		
활동상황	1. '자기 수용을 통한 변화'에 관한 명상하기 2.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와 변화를 유지, 확장하기 3. 스트레스 상황시 대처유형에 대한 강의와 시연하기 4. 지난 시간에 우울한 표정을 지었던 참여자 악마리를 star로 하여 각 구성원들이 star와 star의 남편, 시어머니, 부정적 자아, 긍정적 자아 등을 시연하며 가족의 역동을 경험하기 5. 각 구성원을 시연한 시연자들의 역할벗기 6.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기 7. 가족조각을 시연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기		
기대효과	한 사람의 가족과 관련되는 가족조각이지만, 각 구성원마다 이 가족조각 만들기에 참여하여 각 역할 속에서 인물들의 내적 역동과 가족 역동, 자기 가족과 자신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치유가 일어났을 것으로 기대		
참여자특성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기까지 각 구성원들의 몰입이 지금까지 중 가장 좋았던 회기였음. 가족조각을 시연하면서 각 구성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었음. 각자 내담자와 관련되는 가족이 되어 역할을 해봄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조망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입장과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써 폭넓은 조망과 이해를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음. 종결 시 서로 안아주며 감사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평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회기였다고 평가함.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몰입도, 변화와 성장 면에서도 도약을 이룬 회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5〉 4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0월 29일 (4회기)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적 질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탐색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해보기 2.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 위치 파악과 도달과정 탐색하기 3.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계를 탐색하고 예외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활동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상 기법을 활용한 이완과 자신의 특별한 발견하기 2. 3회기까지 프로그램 진행 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3. 변화 확대와 구체적인 칭찬하기 4. 활동지로 각자의 기적에 관해 탐색하고 확장하기 5. 기적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로 전환하기 6.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7. 현재로부터 기적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생각하고 나누기 8. 전체 메시지 전달과 과제 받기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궁극 목적은 각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회복에 있으나 각 참여자들이 원하는 목표들도 프로그램 속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함.		
참여자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적으로 얼굴은 밝은 표정들이었고,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꿈을 꾸듯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에 차있는 모습이었음. 이것을 가능한 많이 확대해서 그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도록 했더니 동기유발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임. 2. 현재의 위치나 상태 파악과 현재로부터 기적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탐색하면서 참여자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과정 중에서 찾게 되었음. 3.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어 했으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임. 		
평가	활동지에 글을 쓰는 작업을 좀 어려워해서 그림이나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도록 격려했음. 자신들의 꿈과 현실에 대한 상태 파악이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었으므로 변화와 성장이 클 것으로 보임.		

〈표 6〉 5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1월 2일 (5회기)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2. 변화한 상대방의 장점 발견하고 구체적인 칭찬하기 3. 심상기법을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 등을 외면화하여 완화 및 해소하기 		
활동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서와 감정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명상기법으로 파악하기 2. 프로그램에서 달성하기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 도달을 위해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탐색하기 3. 가슴이 답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않고 머리부터 목과 손발 등이 아프다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 하는 참여자 1인(황후마마)을 중심으로 심상기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4. 심상작업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서로 나누기 		
기대효과	진행자의 경험상 심상기법으로 자신의 사례를 다룬 참여자의 경우 오늘부터는 잠시 몸이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속면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가족정책적인 주택과 지원체계 정보를 제공하면 참여자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전달함.		
참여자특성	<p>불면과 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참여자 1인의 사례를 경험적 가족치료 기법 중의 하나인 심상기법을 활용하여 내면 탐색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해결하도록 도왔음.</p> <p>초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죽고 싶다는 심정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5회기 중 바뀌었으며, 답답함의 정도가 10, 13 등에서 6~7로 3회 가족조각 이후 내려갔다가, 심상작업 후 4~5로 더 내려갔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p> <p>함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의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몰입이 좀 떨어지는 듯 소극적이던 다른 참여자들이 개인별 목표에의 도달과정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음.</p>		
평가	이번 회기는 심상기법의 경우 따로 개인면담을 하였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다루었을 것으로 보임. 아니면, 다른 참여자들이 함께 몰입할 수 있도록 전체활동으로 좀 더 확장되도록 구성하였다면 더 나았을 것으로 보임.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도 전화보다는 소극적이었음.		

<표 7> 6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1월 7일 (6회기)		
목 표	1. 가계도 분석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원가족, 배우자와 배우자 원가족에 대한 이해증진하기		
활동상황	1. 명상을 통한 자기의 내면 탐색하기 (어린시절로의 여행) 2. 변화에 대한 탐색과 변화를 확장하고 지지하기 3. 가계도 작성에 대한 강의듣기 4. 가계도 작성하기 5. 작성한 가계도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듣고 가족의 역동성과 관계에 대한 분석을 참여자들과 나누기 6.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점과 느낀 점을 나누기		
기대효과	가계도를 그려보고, 이를 분석하는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현재 가족, 자신과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의 역동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대처해나갈까 할 것인가를 참여자들이 선택하도록 돕고자함.		
참여자특성	처음에는 가계도를 작성하는데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연세가 있으신 참여자의 경우 더 그러했는데, 다른 참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작성하였음. 참여자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원가족 내에서의 배우자의 위치와 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이해를 넓히게 되었고, 그러한 관계가 현재 자신들의 가족에도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평가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으나, 참여자들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였음. 특히 올리브의 경우 가계도 분석을 통해 자신과 남편이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남편에게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음. 황후마마는 어머니, 누이의 갑작스런 연이은 사망과 자신의 질병발발 등으로 죽음과 관련한 두려움이 남편 의처증이란 질병과 개연성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음.		

<표 8> 7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
일시/기간	2009년 11월 9일 (7회기)		
목 표	자기 내면의 빙산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유형과 대처방식,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기대, 열망, 자기에 대한 이해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 넓히기		
활동상황	1. 명상을 통하여 타인과의 접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기 2. 변화를 서로 격려하고 확대하고 유지하기 3. 내면의 빙산에 대한 강의듣기 4. 활동지를 가지고 개인 내면의 빙산 탐색하기 5. 빙산탐색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6. 빙산탐색을 통해 알게 된 배우자의 내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7. 전체 메시지와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 나누기		
기대효과	자신의 몸과 자신에 집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전 회기까지의 명상과정에서 도왔으므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으로부터 열릴 수 있으리라고 봄.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의 빙산탐색을 실행해봄으로써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참여자특성	평소에 서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참여자들인데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어서 서로 감싸고 포용하고 보듬어주며 타인 수용과 관련한 활동이나 함께 짝을 지어 소그룹 활동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화기에애함. 다만, 자신의 문제와 생각, 감정 등에 주로 몰입해있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 기대, 열망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에 대해서나 문제에 대해서나 자신들이 보지 못하였던 타인 특히 배우자나 상황, 자기 자신과 문제에 대해 좀 더 총체적인 이해와 해석 및 조망이 가능해질 것임.		
평가	배우자의 내면의 빙산탐색 과정을 참여자들이 어려워하고, 이미 배우자와 관련한 내면의 상처들이 많아서 집중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음. 이에 반하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여자들간의 수용과 이해는 잘 되고 있으며 참여도 진지하였음.		

〈표 9〉 8회기 과정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1월 14일 (8회기)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조각 기법을 가지고 가족조각을 시연해보으로써 각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상황시의 대처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2. 가족조각을 통해 가족의 역동을 파악하고 각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수용하기 		
활동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상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의 긴장을 풀고 그 부분들에게 감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특별함에 머물러있기 2. 몸동작으로 의사소통 유형을 연습해보기 3. 2인씩 짝을 지어 비난형과 회유형을 바꾸어가면서 연습해보기 4. 비난형과 회유형 각 유형의 입장에서 느끼고 경험해보기 5. 의사소통 유형 연습을 통해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사실들과 이러한 활동시 일어난 자기 내부의 감정과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6. 전체적인 평가와 피드백 나누기 		
기대효과	스트레스 상황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타남을 이해하고, 몸동작으로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참여자들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부터 벗어나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여자특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정폭력의 경험자들이었으므로, 대개의 경우 회유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주로 사용하기 쉬우며, 배우자의 경우는 반대로 비난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유형과 관련한 작업을 몸동작으로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시연해보으로써 자신과 배우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차적인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연습하였음. 다들 열심히 연습해주었고, 특히 비난형과 회유형의 연습에서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투사하였음. 속이는 자세로부터 일어나서 당당하게 바라보고, 비난의 손을 감싸는 작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듯 보였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고 위해주며 좀 더 당당하겠다는 참여자들의 발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었음.		
평가	오래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단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자기를 존중하고 낮은 자세와 위치를 바꾸고 당당해야함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점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클 것으로 기대함.		

〈표 10〉 9회기 과정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오전10:30~12:30)
일시/기간	2009년 11월 16일 (9회기)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분들의 잔치와 내면의 자원 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기 안의 단점과 부정적인 부분의 수용을 선택하기 		
활동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상을 통해 타인, 이 세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인식하고 수용하기 2. 자기 안의 버리고 싶은 부분과 가져오고 싶은 부분을 상호교환하여 긍정적인 자원이 되도록 부분들의 잔치를 시연하기 3. 다양한 긍정적인 자기안의 자원들과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자기의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돕기 4. 다른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서로 나누기 		
기대효과	자기 안의 버리고 싶은 부분도 자기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자기 안의 장점과 자원들도 버겁거나 어렵게 자신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음을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자기 안의 다양한 자원들을 서로 돕고 수용하여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여자특성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거의 다달으면서 참여자들의 얼굴은 중반기보다는 훨씬 편해 보이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더 자유롭게 주고 받았음. 특히나 부분들의 잔치 작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신기해하고, 웃고, 즐거워하였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알려주고,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잘 어울어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자원이 버거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자원으로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서로 도와주었음. 모두들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참여자들이 말하였음. 자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해온 어려움이었기도 하다는 사실들과 단점들도 자신의 부분이며 장단점의 각 부분들이 서로 잘 도와나간다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함을 참여자들이 깊이 공감하였음.		
평가	가장 유쾌하고 편하게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었던 회기라고 생각됨.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점들을 더 활성화하거나 유지하고 단점이나 부정적인 장애요소들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으로 기대함.		

〈표 11〉 10회기 과정 요약

(N = 5)

장 소	2층 프로그램실	소요시간	2시간 55분(10:30~오후1:25)
일시/기간	2009년 11월 20일 (10회기)		
목 표	1. 미래의 현명해진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를 써보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미래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 2. 자신만이 가지는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소개하고 나누며, 대화 속에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색하기		
활동상황	1. 우주 안에서 나와 타인의 연결 경험하기와 호흡법 익히기 2. 10년이나 20년 후의 현명해지고 성장한 내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쓰기 3.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읽고 스스로를 격려하기 4. 쓴 내용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칭찬으로 격려 나누기 5.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적어보기 6.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서로 나누고, 새롭고 실천 가능한 해소방법을 나누기 7. 전체적인 메시지와 격려, 칭찬 나누기 8. 프로그램 사후 검사 작성하기 9. 감사를 서로 나누며 종결하기		
기대효과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는 미래에 대한 꿈과 더불어 현재의 자신의 어려움을 격려를 통해 지지하는 작업이 되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함. 또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나누고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확장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미래로 참여자들을 이끌게 할 것임. 가족정책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였으므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여자특성	참여자 1인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작업을 할 때 너무도 쉽게 뛰어난 문장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적었으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보였음.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다짐도 참여자들이 공유함. 처음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보다는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활기차고 편안해 보임. 정책관련 정보도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적극적임.		
평가	마음이 아름답고 포근한 참여자들이 10회기에 걸친 회기에 빠짐없이 열의를 다해 맞아주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었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참여자들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진행자가 더 많이 성장하고 받아가게 되었음. 참여자들은 앞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에 놓이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성장하고 변화할 것임.		

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2, 3의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의 사전과 사후 차이검증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 향상 이 세 가지를 프로그램의 도달 목표로 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참여자들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모수적 통계방법으로 소수의 차이

검증에 사용되는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의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5명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실시 전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프로그램 사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3.4점 유의하게 높아져서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특히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가 12.8점 높아져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상승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프로그램 사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향상되었다.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성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평균점수가 11.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이 프로그램이 일치적 의사소통을 참여자들이 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세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므로 프로그램의 목표에 모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차이 검증

(N = 5)

	M(SD)	z값
자아존중감 (사전)	26.00(3.40)	-2.032*
자아존중감 (사후)	29.40(3.29)	
자기효능감 (사전)	88.80(7.00)	-2.023*
자기효능감 (사후)	101.40(4.50)	
일치성 (사전)	102.60(9.00)	-2.060*
일치성 (사후)	113.80(6.06)	

*p < 0.05, **p < 0.01, ***p < 0.001

〈표 13〉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의 평균 점수

(N = 5)

별명	자아존중감 점수 총점			자기효능감 점수 총점			일차성 점수 총점		
	사전	사후	점수 차이	사전	사후	점수 차이	사전	사후	점수 차이
마카렛트	26	29	3	82	102	20	90	119	19
빈궁마마	28	32	4	92	99	7	103	110	7
올리브	30	32	2	92	105	13	110	117	7
황후마마	21	24	3	97	106	9	112	118	6
악바리	25	30	5	81	95	14	98	105	7

2.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의 사전과 사후 점수 차이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주 2회씩 총 10회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명의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의 점수 합계, 자기효능감 점수의 합계, 일차적 의사소통의 점수 합계를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로 나누어 점수 변화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모든 참여자들의 사전과 사후의 점수 변화가 2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으나 그 변화는 일차성이나 자기 효능감에 비해 현저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차성 척도는 5점 척도이며 30문항이고, 자기 효능감 척도의 경우 6점 척도에 23문항인데 반하여 자아존중감의 경우 4점 척도에 10문항이므로 총점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두 척도에 비해 적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자아존중감의 문항이 적은 점을 생각할 때 자아존중감의 점수 변화는 적은 점수의 변동이라도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마카렛트가 20점, 악바리가 14점, 올리브가 13점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올랐으며, 황후마마가 9점, 빈궁마마가 7점 향상되었다.

의사소통 유형에서 일차성의 총점이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참여자는 마카렛트였으며 사전과

사후 점수 차이가 19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6점에서 7점의 점수가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참여자는 마카렛트였으며, 그 다음이 악바리, 올리브 순이고, 황후마마와 빈궁마마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3. 참여자 각 개인들의 개별목표와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이외에 해결중심 가족치료 모델을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는데, 해결중심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자기문제해결의 전문가이며, 내담자가 상담에서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달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총 10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내담자들의 개인별 목표를 기적질문과 예외의 발견들 속에서 구체화 하였으며, 그 목표로의 접근과정을 단계별로 탐색하며 확장해나갔다. 개인적으로는 편차가 있으나 프로그램 시작 전과 1회기, 4회기, 7회기, 10회기를 기점으로 변화과정을 확인하였으며, 개인별 목표와 프로그램 실시 과정 및 실시 이후의 변화 과정을 아래의 〈표14〉에 간략히 기술하였다.

〈표 14〉 참여자들의 개별목표와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N = 5)

별명	개별 목표	시기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황후마마	가슴의 답답한 목직한 것이 없어지고, 영양가 없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는 것	시작 전	살고 싶지 않고, 자꾸 죽고만 싶으며, 가슴이 답답함(이런 생각들이 1~10까지 중 10점)
		중기	3회 가족조각 후 6~7로 다음날 다시 13으로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10을 넘어 상승. 5회기 심상작업 후 4~5로 시작 전 생각이 10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 이후 숙면함. 상징적 선 물인 도자기 십자가 목걸이에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대답. 예외화대격려(잘 키운 자녀들에 대한 간접 칭찬, 즐겁고 감사가 넘칠 때를 확대해나가도록 격려)
		후기	9회, 10회를 지나면서 2~3으로 내려갔으며, 몸의 아픈 부위 중 특히 뒷골의 빠근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함. 당분간은 기도, 성경보기, 산책과 운동, 독서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아들과 향후 거처를 의논하기로 결정함.

〈표 14〉 참여자들의 개별목표와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N = 5)

별 명	개별 목표	시 기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빈궁 마마	남편이 자꾸 집으로 들어 오라고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인데 현명한 선택 하고 싶음. 중기에 자신이 좀 더 당당 하게 변하는 것으로 목표 가 바뀜. 종료시까지 목표 도달은 10점 만점에 8점. 종료 후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됨. (프로그램 종료 2개월 후 귀가했고 남편과 화해했다 연락해움)	초기	남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변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라고함. 남편에 대한 신뢰 정도는 10점 만점에 2점이며 2점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집 나온 자신을 대신해서 현재 남편이 가사일하고 있는 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달리 많이 누그러진 점을 들었음.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바로 대응하지 않고 말대꾸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화가 줄어들 면 돈을 낮추고 부드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남편의 불같은 태도가 누그러지고 자신의 말대로 들어주어 그때는 신뢰가 간다고 예외에 대해 말함.
		중기	나무십자가 목걸이와 가죽 물고기가 달린 키홀터를 전하자 자신의 사명과 기도가 다시 떠오르며 전율이 느껴진다고 말함. 바라는 기적적기, 가족조각과 가계도 분석을 하면서 남편과 자신, 자기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향 상되었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자역할을 해왔던 자신이 좀 더 당당하게 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변화함.
		후기	부분들의 잔치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다루면서 회유형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을 위해 운동과 화장품, 장신구, 메니큐어, 퍼머 등도 해주기로 함. 자신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하루 중 1시간과 한달 생활비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뜻을 남편이 협조하도록 다짐받겠다고 결심. 기한을 두고 자신의 미움이 없어지고 남편이 지금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집에 가겠다고 말함.
올리브	부정적인 여러가지 생각을 잊어 버리고 씩씩하고 당당 하며 생활력이 강한 멋진 여성이 되는 것이 목표임.	초기	중학교 때처럼 당당하고 활기찼으면 좋겠고, 지적이고 유능한 여자가 되어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임. 일곱 빗갈의 무지개 목걸이와 무지개 뺨지를 선물받고 자기 안의 다양한 색깔을 생생하게 내겠다고 말함.
		중기	계속 떠오르는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진 자신이 되고 싶음. 지금도 한식을 배우며 떡과 중식 자격증이 있으므로 멋진 자신을 목표로 했을 때 현재의 상태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이며, 한식을 배워서 자격증을 2월에 따므로 계속 지금처럼만 하면 8점으로 올라갈 것임. 식당에 취직을 하거나 분석점이라도 차리게 되면 10점이 될 것.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자신의 감정조절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후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부분들의 잔치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많이 칭찬해주었음. 어린 시절의 그때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처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겠으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고 말함. 다만, 남편과 아들 생각을 할 때마다 우울해서 당분간은 우울하지 않도록 예외를 확장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저녁에 근처 중학교 운동장을 걸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큐티를 하겠다고 함. 대학생 아들의 장점을 다양하게 찾는 과정 속에서 아들에 대한 든든함과 뿌듯함을 느낌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음.
마카 렛트	초기목표는 훌륭한 사회인 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헌신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가 되는 것임. 중기 이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선택 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바뀜. (프로그램 종료 직후 딸과 함께 독립, 취업)	초기	남편이 다시 함께 살자고 만나자고하는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함. 명상과정 중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시간에 소아마비 장애로 어려운 중에도 애써준 자신의 다리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많은 눈물을 보임. 뜻을 단 배가 그려진 작은 방식 키홀터 선물을 보며 출항의 자유가 좋다고 함.
		중기	남편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다가 명상 시간에 충분히 자신을 위로 하고 감사하고 격려 하면서 수용과 지지를 경험하였으며, 가족 조각과 의사소통 연습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개방을 수용해나감. 아이들이 올바르고 자기역할을 잘 감당해나가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자기를 희생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 먼저 자기 스스로를 가꾸고 돌보면서 취업과 관련한 경험과 자격을 구비하고 직업탐색 및 시장조사 등이 선결과제임을 파악함.
		후기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이전단계로 일단은 컴퓨터에 있는 자신이 건강하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매 순간 선택하고 실행하는 시도가 계속되면 남편에게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됨. 프로그램 후기로 가면서 자신의 자신감 회복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선결과제를 실행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유'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그것을 갈구했음을 알게 됨. 예외발견과 예외를 확대하면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저운 자신의 근면, 성실함과 실행력을 발견함.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몰랐고, 그 상태를 2 정도로 본다면, 프로그램 종료의 시점에서는 원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10점 만점에 9정도로 명확해짐.

〈표14〉 참여자들의 개별목표와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N = 5)

별 명	개별 목표	시 기	프로그램 실시 이후 변화과정
악바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임. (프로그램 종료시 10점 만점에 7점 도달)	초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견디기 어렵고, 타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며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자신이 안쓰럽고 힘들어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함. 이것을 긍정적으로 재명명해 목표로 구체화시킴.
		중기	개인과 배우자의 빙산탐색과 원가족 가계도 분석, 자신의 사례로 가족조각 시연 과정을 거치면서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던 열망, 상처, 불충분한 부모 애도의 슬픔을 드러내고 이것에 대한 전체 참여자들의 수용과 개방을 경험하면서 지지받게 됨. 상징적 선물로 초등생 머리띠와 목걸이, 팔찌 선물을 받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며 기뻐함. 악바리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 칭찬과 다른 참여자들이 '말없이 자주 악바리 안아주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중기 이후부터는 감정의 기복은 완만해지면서 분석력, 이해력, 상황 판단력이 웃음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시작함.
		후기	부분들의 잔치와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에 대해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적극 조언하고 말해주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 현재 여건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로함.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중 말에게 가끔씩 전화해주고, 편지를 남편과 딸에게 쓰기로 함.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에서 연결해주는 모자시설로 옮겨가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으므로 참아내기로 결심함. 프로그램 종료 후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점수가 많이 향상됨.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중재의 1단계 작업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모자센터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5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 효능감 향상, 그리고 일차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 19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일차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보고와 그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문제 1의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자아존중감 향상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실시 이전보다 실시 이후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3.4점이 높아졌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자기효능감의 경우 평균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이후에 12.8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의미가 있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세 영역 중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 3의 일차적 의사소통의 경우 평균점수가 프로그

램 실시전보다 실시 이후에 11.2점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일차적이 되도록 돕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 이 세 가지의 향상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볼 때 프로그램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2, 3과 관련하여 각 참여자별로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 이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 세 가지 모두에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를 보여준 참여자는 마카렛트였으며, 그 다음이 악바리, 올리브 순이었고, 황후마마나 빈궁마마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참여자들의 개별목표와 프로그램 이후의 변화과정은 연구결과 3)의 〈표14〉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했으며 종료시에는 개별목표의 도달점에 거의 근사하게 접근하였음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황후마마'의 경우 '가슴 답답한 목직 한 것이 없어지고, 영양가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하지 않는 것' 이 목표였고, 이것이 시작 전에는 10점 만점에 10점 정도이다가 종료 시에는 2~3점으로 내려갔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정지' 를 스스로 명령하기로 하고, 심상기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예외에 대한 탐색과 확장 시도, 명상을 통한 자기에 대한 위로와 존중 등을 통해 몸의 통증들이 사라지고, 죽고싶다는 생각을 버리고 삶을 선택한 점 등이 자아존중과 자기효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빈궁마마’의 경우에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고 좀 더 당당하게 변하고 싶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그러한 목표가 10점 만점에 8점정도 도달했다고 보고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2개월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매 달 하고 싶다는 요구를 남편을 만나서 일차적으로 전달하였으며,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전했다. 그 이후 남편이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으며,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고맙다고 연구자에게 전화로 근황을 들려주었다. 일련의 과정을 보건대 빈궁마마의 경우 자신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기는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회유형의 의사소통으로부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을 일차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의 향상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고 자기를 위한 투자와 시간을 내는 것이 자기 삶에 중요함을 인식한 점, 자기 삶의 선택과 그 선택에서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올리브’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씩씩하고 당당하며 생활력 강한 멋진 여성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는 6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2월에는 요리자격증 획득하여 8점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미래의 현명한 자기가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자신에게 읽어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하였다. 또한, 가계도 분석과 빙산탐색, 의사소통 유형 연습 속에서 자신이 남편과 ‘세력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비난형으로 주로 남편을 비난해 온 사실과 그것이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고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나가도록 척도질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동료들의 칭찬과 아들 교육에 대한 간접칭찬을 듣고 아들에 대한 든든함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 더하여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과 큐티하기 등도 스트레스 해소와 이완을 위해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탐색과정들은 자아존중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형인 점을 인식하고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극복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마카렛트의 경우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그녀의 후기 목표였는데 그것이 종료시점에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로 명료해졌다고 말했으며 프로그램 종료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차적 의사소통 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회기 중간에는

남편을 만나 이전과는 달리 회피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함을 당당하게 말한 점에서 일차적 의사소통 연습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시에는 남편과의 재결합을 선택하지 않고 딸과 독립하여 쉼터를 나갔으며, 한식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식당을 차리기 위한 이전 작업으로 식당 취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과 더불어 명상 작업 속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자신의 근면, 성실함, 실행력, 강한 생활력을 장점으로 파악하면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악바리는 프로그램 초기에는 가장 우울해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낮은 극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녀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프로그램 종료시에는 10점만점에 7점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실제 가족조각으로 자신의 사례를 시연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자신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과 열망 등을 표현하였으며, 시어머니와 남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후반기에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의 탐색과 팀에 부과한 ‘악바리 안아주기’ 과제의 실행, ‘구체적인 칭찬’, ‘상징적 선물’, ‘부분들의 잔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자존심 보다는 가족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소중하며 그것을 돈을 들이지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과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 앞으로 삶에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족의 긴밀한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음을 파악하면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참여자들에게 매 회기마다 실시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에 대한 난이도와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의 실생활에의 활용정도를 1~10점까지의 숫자로 자가평정하게 하였다. 특히 활용정도는 프로그램 사후 앞으로 참여자들의 실생활에 활용정도를 평정하게 한 것이므로 추후조사를 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으나 참여자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기대되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활용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가평정하도록 했을 때 실시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의 총평균은 6.4점으로 중간점수 5.5점보다 모두 높았으며, 특히 상위에 속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스트레스 해소와 이완하기(8.4점), 나와 남의 구체적인 칭찬하기(8.2점), 나에게 보내는 격려편지쓰기(8.0점), 부분들의 잔치로 자기만의 장점과 단점 통합하기(7.2점), 일차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하기(7.2점),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 이해하기(6.8점), 자아존중감 갖기(6.6점), 자신과 타인의 장점 이해와 수용하기

(6.4점), 원하는 기적을 현실과 연결하여 구체화하기(6.0점) 등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실제 삶 속에서 활용되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치적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집단상담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5명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개인상담의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해 프로그램 전체를 마칠 때 도달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의 개인별 설정 목표들을 10점 만점에 10점까지 모두 도달하도록 돕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이 연구는 참여인원이 5명으로 소수였으며, 연령대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였고, 프로그램에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자녀들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추후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은 피해여성들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보며, 변화하고 성장한 그녀들로 인해 그들을 가해한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도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이후의 삶에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연구와 가정폭력 관련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희, 이현림(2008).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고정집단 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85-102.
- 강희숙(2006). 사이코드라마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우울과 치료효과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9(2), 1-11.
- 강희숙(2007). 학대받는 아내의 학대 과정 경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21-341.
- 고문정(2008). Satir 일치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공미혜(1993).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여성문제공개토론회 자료집**, 이형자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11.
-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숙(2003).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09-120.
- 김경신, 김정란(2000).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실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7-132.
- 김광일(1985).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3, 218-234.
- 김광일(1988). 부부 폭력의 임상 실제, **정신건강연구**, 9,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74-183.
- 김광일(1992).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봄호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미애(2006).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19-546.
- 김병수(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아, 현명선(1999).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8(1), 17-26.
- 김수연, 김득성(1999). 순환모델에 따른 비폭력부부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41-255.
- 김수연, 김득성(2001).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53-62.
- 김아영(1997a).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2), 미간행 연구자료.
- 김아영(1997b).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수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1998). 동기 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51-64.
- 김양순(2009).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부모-자녀 관계 치료 10세션 모델의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63-78.
- 김연실(2000). 부모의 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옥, 박인아(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영애(2006). **인간관계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 사소통 훈련프로그램**.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예정, 김득성(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41-153.
- 김유숙(2003). 놀이를 활용한 이혼가족의 해결중심단기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77-100.
- 김재엽(1999). 아내구타 피해여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통일적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8, 68-99.
-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31-59.
-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2008).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적 사회관계망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15(4), 89-115.
- 김재엽, 최수찬, 정윤경(2008). 직장-가정갈등과 스트레스가 남편의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가정폭력 해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남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21-135.
-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란(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71-180.
- 김지영, 최상진(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77-95.
- 김혜정, 황경열(2005). 동·서양의 심리치료: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8(2), 117-136.
- 김환(1999). 학업적 무물거림에서 실패공포가 과제 제출 행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혜련(2003).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해결중심적 개별상담의 효과가능성에 대한 모색.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79-215.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신(1992). **가정내 폭력과 일상생활**. 서울: 등불.
- 박재우(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형원(2004).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 103-130.
- 서산 가정폭력상담소(2000). 서산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통계.
- 소병숙, 정혜정(2002). 쉼터거주 아내들의 학대경험과 대처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169-197.
- 손정영(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자(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송성자(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송정아(200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Satir 가족치료. **기독교 상담학회지**, 81-104.
- 송진희(2008).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 및 KHTP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 83-102.
- 서혜석(2005). 자아존중감 및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Satir 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0(11), 25-41.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2004). 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3(3), 611-636.
- 신영화(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아이 성향 자녀의 가족에 대한 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27-154.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심포지움 논문집**, 18-52.
- 안영희(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병한(2005).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과 지연경향 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2, 89-110.
- 양혜원(2002). 쉼터 이용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문제: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25-50.
- 양혜원(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모역할 향상 프로그램 개발. **가족과 문화**, 20(3), 127-160.
- 양혜원, 전영희(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7통합본, 127-152.
- 유계숙, 장혜경, 전혜정, 김윤정, 민성혜(2009).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희정(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 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은, 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

- 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7(1), 95-123.
- 이인수, 최대현, 최명구(200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행위자 집단교육프로그램개발-사이코드라마를 적용하여-**, **아동교육**, 14(2), 179-197.
- 이은주(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중단을 위한 한국적 집단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295-327.
- 이은주, 최외선(2005). 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2(1), 255-279.
- 이종원, 옥선화, 남영주(2005). 아내폭력의 실태와 관련변인들 -충남 서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8), 141-159.
- 장덕희(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229-258.
- 장수미(2004).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 가해자 폭력행동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1), 103-126.
- 장희숙, 허남순, 김유순(2001).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 7, 231-254.
- 전병계(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전형미(1989).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희, 최외선(2003).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201-230.
- 정문자,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민자, 엄선필(2002).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결혼과 결혼지속 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연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49-61.
-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 이경옥(2005). 가정폭력 피해 모녀에 대한 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3(1), 1-29.
- 정현숙, 유계숙(2004). **가족관계**.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6-326.
- 조미숙(2004). 가정폭력 수감명령 대상자를 위한 RET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임상사회사업연구**, 1(1), 23-40.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03-130.
-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정혜정(1999). 가정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59-173.
- 한경혜, 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개인과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2000). **가정폭력관련상담원 교육**. 춘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의 전화(1995). 여성상담사례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일, 현명호(2005). 지연경향성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과제의 자아위협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59-277.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허남순, 장희숙, 김유순(2000).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및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 현미열(2008).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7(2), 109-117.
- Alsaker, K., Moen, B. E., Nortvedt, M. W., & Baste, V.(2006). Low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abused women, *Quality of Life Research*, 15(6), 959-965.
- Anderson, K. L.(1997). Gender, status, and domestic violence: An integration of feminist and family violence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655-669.
- Atkinson, M. P., Greenstein, T. N., & Lang, M. M. (2005). For women, breadwinning can be dangerous: Gendered resource theory and wif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137-1148.

- Ball, P., & Wyman E.(1978). Battered wives and powerlessness. *Victimology*, 2, 542-552.
- Bandura, A.(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김의철, 박영신, 양계인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7년 원저발간)
- Beck, A. T., Epsteinn, N., Brown, G., & Steer, R. A. (1989).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lsky, J.(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 Campbell, J. J., & Humphrey(1984). *Nursing Care of Victims of Family Violence*, Virginia:Reston Publishing Company.
- Davi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Maris, A., Benson, M. L., Hill, T., & Van Wyk, J. (2003). Distal and proximal factors in domestic violence: A test of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652-667.
- Doumas, D., Margolin, G., & John, R. S.(199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ggression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157-175.
- Egeland, B.(1993). A history of abuse is a major risk factor for abusing the next generation. IN R.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f family violence*, 197-208. London; Sage.
- Felson, R. B.(1996). Big people hit little people: Sex difference in psysical power and interpersonal violence. *Criminology*, 34, 433-452.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raham-bermann, S., & Levendosky, A. A.(1998). Social functioning of preschool-age children whose mothers are emotionally and physically abused. *Journal of Emotion and Abuse*, 1, 59-84.
- Heyman, R. E., & Slep, A. M. S.(2002). Do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864-870.
- Hiberman, E.(1980).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e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taling, G. T., & Sugarman, D. B.(1986). An analysis of risk facto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Infante, D. A., Chandler, T. A., & Rudd, J. E.(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177.
- Kaukinen, C.(2004). Status compatibility, Ps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452-471.
- Kolbo, J. R., Balkely, E. H., & Engleman, D.(1996).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281-293.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07-320.
- Melzer, S. A.(2002). Gender, work, and intimate violence: Men's occupational violence spillover and compensator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820-832.
- Migliaccio, T. A.(2002). Abused husbands: A narra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23, 26-52.
- O'Keefe, M.(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Onyskiw, J. E., & Hayduk, L. A.(2001). Underlying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characterized by physical aggression, *Family Relations*, 50(4), 376-385.
- Parish, W. L., Wang, T., Laumann, E. O., Pan, S., & Luo Y.(2004).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hina: National prevalence, risk factors and associated health problem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0(4), 174-181.

- Perry-Jenkins, M., Repetti, R. L., & Crouter, A. C.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81-99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ir, V.(1978). *Your Many Faces*. Millbrae, CA:Celestial Arts.
- Scott, P.(1974). Battered wi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433-441.
- Shin, H. L.(1995). *Violence and intimacy: Risk ma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olomon, L. J., & Rothblum, E. D.(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2, 640-654.
- Straus, M.(1978). Wife beating. *Vicimology*, 2, 443-458.
- Straus, M. A., & Gelles, R. J.(1990). How violent are american families? Estimates from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resurvey and other studies. in M. A. Straus & R. J.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95-112.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Tontodonato, P., & Crew, B. K.(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Umberson, D. J., Williams, K. L., & Anderson, K. L. (2002). Violent behavior: Measure of emotional upse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89-206.
- Walker, L.(1978).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 Widom, C. S., & Maxfield, M. G.(2001). An update on the "Cyclcy of violence."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Justice.
- Wolak, J., & Finkelor, D.(1998). Children exposed to partner violence. In J. L. Jasinski.,& L. M. Williams (Eds.), *Partner viol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73-111. Thousand Oaks, CA:Sage.
- Yount, K. M.(2005). Resources, family organization,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ed women in minya, egyp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579-596.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1984.

접 수 일 : 2010년 1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0일